

# 올 여름 사찰서 특별한 경험을

전북 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인 금산사(주지 원행)와 선운사(주지 법만)가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올해부터 초기불전 전문대학원을 개설한 선운사는 7월 26~29일과 8월 5~8일 2차례에 걸쳐 아나빠나(수식관) 집중수련회를 개최한다. 3

도 하며, 코끝의 호흡에 번호를(1~8까지)붙여가며 관하며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법으로 주로 남방 불교 관에서 이뤄져 왔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29일~ 8월 21일까지 금산사에서 '나는 쉬고 싶다'라는 주제로 여름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산사는 2박 3일간 총 4회에 걸쳐 100명씩을 초청할 계획이다. 금산사는 이번 템플스테이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건강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불교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금산사 일감 스님과 함께 3~40대 직장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 한번 잘 쉬어볼 수 있게 '나를 내비뒀다'라는 콘셉트로 준비된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는 2박 3일 동안 나를 구속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ESC', 숲길포럼, 일감 스님의 내비뒀다 콘서트, 108배, 참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섬마을 여행가 강재윤, 섬진



전북 지역 사찰들이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사진은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모습

강 시인 김용택, 달팽이 사진공방 주인장 임종진, 이야기가 있는 사찰 음식 선재 스님이 매회 게스트로 초대돼 토크쇼 형식으로 일감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비뒀다 콘서트'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내비뒀다 콘서트'는 있는 그대로의 평등

함을 지향한다. 긴장으로부터 여유를 누리며, 화내기 이전의 분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 즐거운 열정을 만들자는 다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콘서트에는 이창선 퓨전 국악밴드, 인디밴드 유&김, 아쟁 김영길, 이태연희 등 지역에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금산사 '내비뒀다 콘서트'

## 선운사 '아나빠나 집중수련회'

박 4일간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초기불전 대학원장 재연 스님의 법문과 교수사 환설 스님이 아나빠나 시대 경전 강의, 학각 도정 스님의 수행 지도가 예정돼 있다.

아나빠나 수행이란 수식관이라고

## 통일쌀 경작으로 일치된 한마음

### 화엄사·기아차·조선대 구례농민회



화엄사, 구례농민회, 기아차, 조선대가 통일쌀 경작에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구례농민회(회장 김중옥)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와 더불어 7월 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2007년부터 어려운 북한 동포를 위해 통일쌀경작단을 구성하고, 매년 통일쌀 공동 모심기와 모내기 행사를 갖고 만남을 이어왔다. 수확된 쌀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

구례 화엄사는 이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백장 청구의 내용이 담긴 액자를 전달했다.

화엄사 재무국장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액자의 적힌 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절에서 함께 농동을 하는 윤력은 구름처럼 힘을 모은다. 여럿이 같이 힘든 일을 나누어 한다"라는 의미라며, "스님들의 마음가짐이 농부와 노동자들의 마음이 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구내식당에서는 구례에서 경작한 쌀 1만가마를 매년 소비해주는 광주공장 노동조합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층 의미를 더했다. 한편 2007년 시작된 통일쌀경작은 화엄사 소유의 땅 900평에 화엄사 스님들과 구례 농민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400여 가마를 매년 북한에 지원해 왔다. 2006년 당시만해도 쌀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촌경제와 농민들의 마음은 괴멸해 있었다. 이에 화엄사는 농산물 직거래 전시장을 경내에 개설하고, 구례지역 쌀로만 부쳐진 공양미를 올리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로 조성된 삼존불에 헌향을 하는 수산 스님

## 화재의 아픔을 이겨낸 복원불사

### 대원정사, 소실된 대웅전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3년 간의 복원불사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대웅전 복원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7월 2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점안식에서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대웅전에서 자신이 마음자리를 깨우치는 불자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원된 대웅전은 2007년 6월 화재로 소실됐으며 2008년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복원공사가 진행돼 작년 4월에 완공됐다.

그 후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로사나불인 삼존불을 모시고 후불탱화와 불단 등이 마련돼 이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대원정사는 지역의 불교대학을 확대하고, 향후 어린이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사들의 수행결사 한자리서 조명

## 백양사 제3차 야단법석

고불총림 백양사가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초청,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에 대한 토론 법회를 개최한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백양사 경내에서 '수행결사와 참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을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중요경전에 나와 있는 선사들의 수행결사를 조명하는 자리로 △영축총림 통

도사 율주 해남 스님의 '울장에 담긴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익산 사자암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참수행자들의 뜻을 모으는 결사에는 예로부터 한국불교 수행의 근간을 이루고 수행자들에게 끊임없는

회두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백양사 야단법석은 각 경전에 나와 있는 결사의 의미를 되새겨,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백양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참여하여, 열린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뜻있는 불제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61)392-010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해남 대흥사 천운 스님 1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 복지 포교 주력한 호남불교 큰 별

지난해 입적한 호남불교계의 큰 별, 천운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남 대흥사(주지 법각)는 대흥사 보현전 앞마당에서 제1주기 천운당 상원대중사의 추모다례재를 7월 3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진제 스님, 명선 스님, 암도 스님, 총무원장 지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다례재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의 행장소개에 이어 원로의원 진제 스님의 추모 법문, 총무원장 지승 스님의 추모사, 주요 인사들의

추모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지승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대신해 영정 앞에서 삼배의 예를 올렸다. 진제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천운 스님은 복지포교에 남다른 보살상을 실천하신 호남불교의 큰 어른이셨다"며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사부대중 모두는 씬 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운 스님은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 향림사에서 법랍 64세, 세수 79세로 열반에 들었다. 스님은 입적 전 문도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며, 마음을 늘 청정하게 수행하면, 이것



대흥사 천운대중사 1주기 추모다례재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스님은 1958년 고창 선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하고, 구례 화엄사와 해남 대흥사 주지와 조실을 역임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노인, 불우 아동 등 평생을 호남지역 불교포교와 교육, 복지에 큰 업적을 남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발전 도모

###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개최

전북 고창의 천년고찰 선운사(주지 법만)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7월 5일 마련했다.

선운사 생태공원 앞에서 열린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은 전북 고창군 삼인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공동체인 선운골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죽구, 농구공 넣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림보, 불링 등의 놀이를 겸한 게임을 펼치며 승속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이 고리 던지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발휘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

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 다 영 보 이

다 茶 영 보 普 이 珮

-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25,000원  
38,000원

100g

산차 70,000원  
65,000원

330g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콜 02)732-15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www.day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 포함)

• 고품질 무선마이크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